

# 전남농기원, 국가 공인 한우 씨수소 2마리 첫 배출

1마리 당 경제적 가치 약 100억 추정  
정액 생산량 50% 지역 내 우선 공급  
한우농가 정액 수급 안정·생산성 향상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8일 "2026년 제1차 가축 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에서 축산연구소가 생산·관리한 한우 수소 2마리가 국가 공인 씨수

소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씨수소 1마리 당 경제적 가치는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번 선발은 전국 530마리를 대상으로 한 유전 능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총 40마리가 선발됐다.

선발된 씨수소 KPN1994와 KPN1995(사진)는 도체중과 근내지방도 등 주요 형질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며 성장성과 육질을 함께 갖춘 개체로 평가됐다. 전남지역 한우 개량과 고급육 생산 기반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도체중은 도살한 가축의 가죽, 머리, 발목, 내장 따위를 떼어 낸 나머지 몸뚱이의 체중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씨수소 생산 기반 마련

을 위해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한우 고능력 씨암소 육군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10년간 계획교배, 능력검정, 유전평가를 반복 수행하며 고성장·고육질 씨암소 육군을 조성했다. 2023년부터는 농식품부 '한우육종센터'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씨수소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한우산업은 생산비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며 우수 정액 수요가 공급을 웃돌면서 농가의 정액 확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선호 정액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정액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에 선발된 씨수소는 약 11개월간 정액 생산과 비육 과정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생산한 씨수소 2마리의 정액은 생산량의 50%, 마리당 5만개씩 지역에 우선 공급돼 정액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우 암소를 사육하는 생산 거점으로 우수 씨수소 정액의 지역 공급은 한우농가의 정액 수급 안정과 생산성 향상,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 한우 개량 연구를 통해 우수 씨수소를 지속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 남도장터서 전복·민물장어 최대 30% 할인

내달 말까지 수산물 소비촉진 기획전

전남도는 28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전복과 민물장어 양식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5월31일까지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정의 달 수산물 소비촉진 온라인 기획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산지에서 어업인이 직접 생산한 전복과 민물장어를 기존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에는 연휴 기간 가족 단위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수산물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어 소비 진작에 기여할 전망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3월 풀무원푸드앤컬처와 업무협약을 통해 휴게소 전복 특화메뉴 9종을 개발했다.

5월에는 (주)오뚜기와 국산 전복을 원료로 한 전복죽을 개발해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단체급식, 판촉행사 등을 지원해 연간 전복·민물장어 등 수산물 100억을 소비할 계획이다.

손영근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 등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시기인 만큼 수산물 소비 부진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어업인 지원을 위한 내수 진작과 유통 활성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 전남동물위생시험소, 환절기 가축 질병 선제 대응

내달 초까지 호흡기질병·설사 집중검사  
영양관리·축사 환경 개선 등 신경써야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28일 "최근 일교차가 10℃ 이상 벌어지는 등 기온 변화가 커짐에 따라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 질병 등 가축 질병 검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가축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호흡기 질병이나 소화기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5월 초순까지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 질병이나

설사 등 가축 질병에 대한 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질병 감염 여부와 항생제 감수성 검사 등 검사 결과를 분석해 질병별 효율적인 예방법과 치료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환절기에 발생하는 가축 질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사 소독 등 차단방역과 함께 가축의 영양관리와 축사 환경 개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며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시·군 등 가까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농가에서 의뢰한 1천700여건의 시료에 대해 가축 질병 정밀검사를 실시, 예방과 치료 방안을 제시하고 결핵 등 28건의 법정전염병을 색출하는 등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양시원 기자



시니어클럽 체력 측정 광주 서구 시니어클럽 회원들이 28일 서구체력인증센터에서 혈압, 근력 측정, 건강 상담 등을 받으며 체력 측정을 받고 있다. /김애리 기자

## 광주시, 청년정책 평가 4년 연속 '우수'

'산업·교육·정주' 연계 정책 삶의 질 향상  
GCC사관학교·주거 지원 우수 사례 선정

광주시는 28일 "국무조정실 주관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4년 연속 청년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시행하는 '청년정책 추진실적평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청년정책의 성과를 분석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는 광주시를 포함해 서울, 부산, 충남,

경북이 최종 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시·도 소관 119개 청년정책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청년의 삶 개선도(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30%), 청년의 참여·소통(20%) 등이다.

여기에 기초지자체 청년정책 지원, 청년 전담 공무원 및 예산 비중, 청년과제 이행화 등 가산 점 항목이 종합 반영됐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과 문화콘텐츠 등 지역 전략산업을 청년 일자리와 연계한 특화 모델을 구축, 교육이 취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산업·교육·정주'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금융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뿐만

아니라 자존감 회복까지 고려한 포용적 금융 모델을 도입하는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청년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교육과 정주를 연계한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사업(GCC사관학교)'과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킨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은 내실 있는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시·도 우수정책' 사례로 소개됐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광주시는 올해 27개 부서에서 총 4천499억원 규모의 9개 청년정책 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지역 청년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묘 이감 · 개강**

**가족묘 조성 / 개강 / 묘지이감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감 전문 ☎ 문의) 062-464-3466**